

아직 대작을 기다리는 주제 '한국전쟁'

박명림 지음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I》

라종일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소련 공산주의체제 붕괴 이전의 이야기인데, 역사기술에 관해서 “과거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역설적인 말이 있었다. 이것은 물론 어느 특정한 시기에 정치적인 필요로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독재국가에서 처럼 반드시 그때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역사가 어떤 시기의 특정한 관심이나 문제의식을 반영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잘 알려진 역사학자 한 분이 “역사의 여신과 고객”이라는 강연을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의 기술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는 학자적인 양심과 직업적인 능력으로서 어떤 작품이 한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관심의 제한을 넘어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가 하는 것이다.

좀 막연한 이야기이지만 필자는 이점에 관해서 어떤 시기의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가장 잘 추출하고, 다른 작품이 동시에 그 시기를 넘어서 오래 고전으로서 자리를 지킨다는 생각을 한다. 당시로서는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된 문제를 중심으로 삼는 작품이 단명으로 끝나고 저자의 명성도 쉽게 잊혀지는 경우를 간혹 보는 반면에, 다른 경우에는 일반이 별로 주목하지 않은 면을 부각시킨 저술이 고전으로 오랜 명성을 누리는 경우도 보게 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필자는 같은 주제에 관한 저술로 ‘결정적인’ 책을 써낸 것으로 유명해진 저자에게 그 책의 수명이 10년을 가면 운이 좋은 셈일 것이라고 반농담삼아 이야기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이야기가 비슷하게 맞은 것이 아니었나 한다.

거의 모든 자료 망라

각설하고, 대부분 큰 역사적 사건에 관한 기술이 마찬가지로 있지만 한국전쟁만큼 여러 가지로 논쟁이 많고 시기가 저자에 따라서 서로 다르거나 상충된 해석을 내린 주제도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친구 한 분은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기록방식의 변천에 관한 역사를 논문으로 쓰기도 하였다.

가장 최근에 나온 박명림박사의 《한국전



역사상 큰 전기는 흔히 변방이 그 속명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이뤄진다. 한국전쟁은 아직 대작을 기다리는 주제이다. 그때까지 그것은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남출판 / A5신 / 각 504·956면 / 14,000원·20,000원

쟁의 발발과 기원》도 이 주제에 관한 중요한 저술의 하나로 꼽히게 되리라고 여긴다. 우선 이 책은 대단한 노작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현재로서 입수가능한 것은 (그리고 때로는 입수가 어려운 것까지도) 거의 모두 수집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사회과학적인 입장을 구축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필자는 저자가 오랫동안 이 주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들을 일부라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책에서 느끼는 감회가 유별나다. 또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서(특히 소장 학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작업을 해야 하는지 고려할 때 이 성취는 더욱 돋보인다. 늦게나마 정부의 지원으로 외국에서 번역출판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반갑게 여겼다. 이것은 유망한 소장학자에게 주어지는 인식과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나 학문적인 면에서나 마찬가지로이다.

기울인 노력에 비하여 아쉬운 점은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새로운 문제제기나 조명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80년대를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현실참여(관심)를 경험한 세대 중에서 훌륭한 학자가 나오리라 예감과 기대를 가졌었다. 80년대의 경험은 이 책에서 보는 것보다 몇 걸음 더 심

층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새로운 문제제기 없어 아쉬움

새로운 세대에게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업적이란 옛날의 문제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의 틀을 무효화하고 사람의 현실인식 경험을 더 높은 차원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문제의 제기이다. 이런 점에서 이론적인 문제를 다룬 서론 부분은 실망보다 민망한 느낌을 준다.

저자가 ‘비관합리주의’라고 제시하는 ‘시각’은 그 뜻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도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알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와는 반대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서, ‘북한 조기붕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이른바 ‘연착륙’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비관 합리주의’의 입장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피상적인 도덕주의적 입장은 한국전쟁을 다룬 사람들이 ‘남침’을 비판(비난)하기 위하여 흔히 취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내친 김에 한마디 더하자면, 수많은 “일찍이...가 ...라고 말한 바와 같이”를 앞세운 인용문으로 시작되는 가설적 언명들이나 일반인에게 생소하게 들릴 학술적이라고 보이는 조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론적인 규명이나 이런 작품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글모양에 모두

좋은 일이 아니다. 이 점은 특히 번역 출판할 때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한다.

본문의 대부분은 실은 진부한 문제, 즉 남침의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른바 수정주의적 ‘혁명전쟁론’을 부인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논쟁들은 구 소련의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한 이래 대략 정리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 점에 관해서는 저자가 근래 국내외에서 나온 연구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책의 말미에 저자는 자신의 독특한 업적으로 몇 가지를 들어 주장하는데 설득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문제는 저자가 주장할 일이 아니고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저자는 공부한 바와 수집한 자료를 가능한 대로 많이 투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좋은 논문이나 저술은 그 부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능한 대로 간결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새로운 저술이 부피가 크다면 그것을 정당화해 줄 만한 새로운 시각이나 사실의 규명이 있어야 한다. 부피를 너무 늘린 탓인지 내용 중에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눈에 띈다. ‘북침론’이나 ‘혁명전쟁론’ 뿐만 아니라 ‘혁명’까지도 별 의미가 없게 된 현실에서 이 책의 주제는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끝나지 않은 전쟁

한국전쟁은 냉전이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 상황에서 중심부에서는 집단적 폭력사용의 위협이 상존하는 반면 실제 위협은 없다. 변경지역에서만 대규모의 폭력이 여전히 정책추구의 수단으로 유효하다. 제국의 초소에서 살육이 계속되는 중에도 강대국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외교관계도 그대로 지속된다. 이 점에서 한국전쟁은 그렇게 독특하거나 유일한 사건이 아니었다.

역사상의 큰 전기는 흔히 변방이 그 속명을 극복하는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학문, 예술 등)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전쟁은 아직 대작을 기다리는 주제이다. 그때까지 그것은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